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1월 호)

Happy New Year

2026

새해를 맞으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 :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계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사진: 이경식 수석 부총장(국제협력)〉

사랑하는 동문, 후원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에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의 문턱에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의 사명을 붙드시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열어 오셨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 CST에는 당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학생 수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으며, 2026년 봄 학기에는 약 40명의 신입생이 추가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전체 재학생 수는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학생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 믿습니다. 특별히 전체 학생의 35% 이상이 한인 학생이라는 사실은, 한인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이 사명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숨통을 트이게 하셨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 등록금 수입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고, 현재 석사 과정에 입학하는 한인 학생들에게는 100% 등록금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와 신학자를 세우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며,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신 교회와 동문, 후원자들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입니다.

학교의 운영 구조 또한 지난 시간 동안 깊은 결단과 절제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2015년 당시(교수진 제외) 60명이었던 직원 수는 현재 12명으로 축소되었고, 캠퍼스 유지 비용과 장기간 부담이 되었던 법정 소송 관련 비용도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교는 이르면 금년 또는 내년부터 균형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티는 학교”를 넘어,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로 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CST가 개교 140주년을 맞이한 이 해에 이러한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학교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시대를 읽는 신학자를 세우며, 복음의 공공성을 증언하시고자 하신다는 부르심의 증거라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전임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CST 동문만 해도 약 45명에 이르며, 한국 교회의 여러 중요한 자리에서 CST 동문들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이 학교의 이야기는 어느 한 기관의 성공담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걸어온 믿음의 여정입니다. 앞으로의 길 또한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한국과 한인 교회와 계속해서 이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 안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석 부총장(국제협력)
이경식 드림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재학생 종강 파티

12월 28일 주일 저녁 5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재학생들은 연말을 맞아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종강 파티를 가졌다. 기말고사와 교회 사역을 마친 LA 인근 거주 한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이번 모임에는 Center for Korea Ministry 임원 목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번 종강 파티는 이경식 부총장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LA갈비와 떡볶이,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고, 식사 후에는 과일과 케이크로 후식까지 나누며 풍성한 교제가 이어졌다.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말의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한인학생회 임원들의 주관으로 게임이 진행되었고, 모든 참석자가 선물을 받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업과 사역으로 바쁜 한 해를 보낸 학생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가을학기 수업과 사역 이야기뿐 아니라 미국 생활, 그리고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나눔도 이어졌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 덕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한인학생회는 새해에도 이러한 만남을 이어갈 것이며, 한인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 힘을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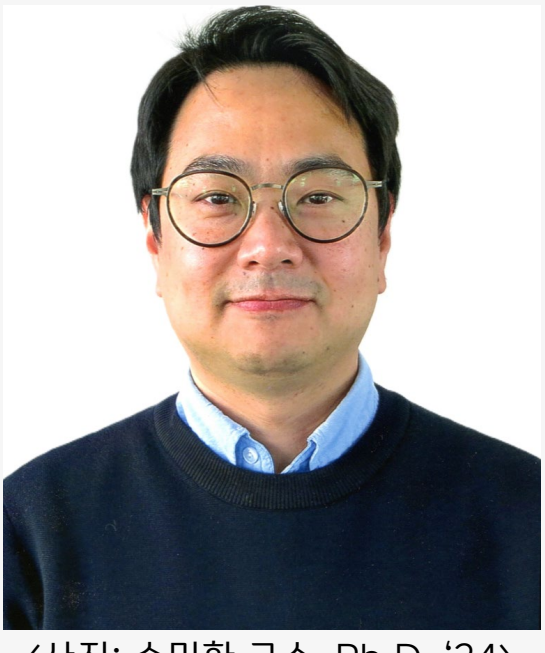
〈사진: 바쁜 한 해 끝에서, 함께 먹고 이야기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따뜻한 연말의 시간〉

CST, 2026년 겨울과 봄학기 상담학 박사과정(DPC) 집중 수업 개최

2026년 겨울과 봄 학기를 맞아 CST 전문상담학 박사과정(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DPC)의 주요 과목 강의가 온라인 집중 수업으로 개최된다. 이번 학기에는 정푸름 교수와 송민환 교수가 각각 'Human Relationship & Counseling: Family & Gender(인간관계와 상담: 가족과 젠더)'과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상담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정푸름 교수, Ph.D. '10〉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정푸름 교수가 담당하는 '인간관계와 상담: 가족과 젠더' 강좌가 열린다. 본 강좌는 사회문화적 힘이 젠더, 성적 지향, 권력,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찰하며, 페미니스트 심리치료를 소개하고 내담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또한 스토리텔링, 상호작용, 임상 실습 및 그룹 작업을 통해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돌봄을 탐구하고, 권력 역동을 분석하며, 문화적 구조가 정체성, 관계, 그리고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사진: 송민환 교수, Ph.D. '24〉

2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송민환 교수의 '상담 연구 방법론' 수업이 진행된다. 본 과목은 상담 연구에서 활용되는 핵심 연구 방법론과 절차를 학습함으로써, 수강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수업은 특히 질적 연구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s)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이는 최근 심리상담 연구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폭넓게 수용되는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목은 수강자가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서경혜, 2024). 강의에서는 연구 설계와 조사 진행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Human Subjects Research)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원칙을 함께 다룬다. 다섯 가지 질적 연구 방법을 학습하며, 각 방법의 특성과 연구적 강점을 이해하고, 연구자의 성찰성(reflexivity)과 연구 및 연구 참여자의 맥락에 대한 민감성을 논의한다.

본 과목을 수료한 수강자는 학위 과정에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엄밀성과 타당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상과 실천 현장에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여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과정: 2026년 1월 한국 집중 수업 대전

〈사진: 2025년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집중 수업 중〉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한국어 과정 집중 수업이 2026년 1월,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열린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 집중 수업은 글로벌 신학 교육과 지역 목회 현실을 연결해 온 CST D.Min. 프로그램의 교육 철학을 현장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집중 수업에는 각 과목당 약 20명의 재학생이 참여하며, CST의 교육 방식과 수업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6명의 목회자들이 참관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수업은 대전 목원대학교 구 신학관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숙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목원대학교 생활관을 이용하게 된다.

〈사진: 왼쪽-강남순 교수, 오른쪽 - 지난 2023년 1월 강남순 교수와 학생들 단체사진〉

첫 번째 집중 수업은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며, 강남순 교수가 「코스모폴리탄 리더십: 글로컬 갈등의 세계에서 치유와 변혁」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수업은 강 교수가 처음으로 한국어 D.Min. 강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세계화와 지역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갈등의 현실 속에서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실천을 결합하는 리더십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지난 12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목회적 책임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 과정은 본 수업을 향한 신학적, 실천적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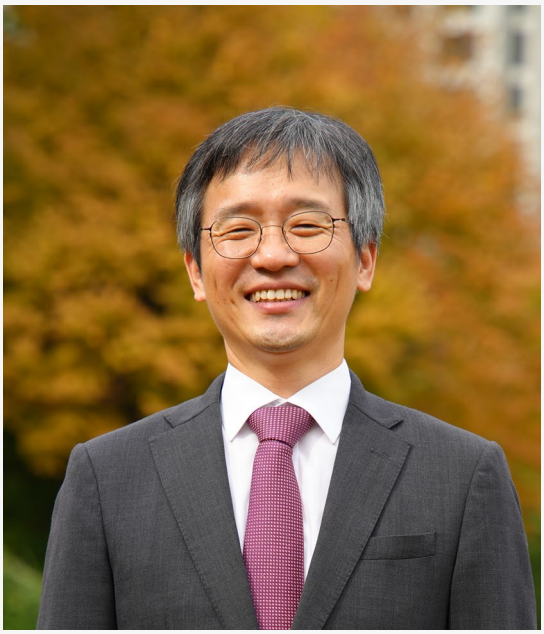
〈사진: 왼쪽-우진성 교수, 오른쪽 - 지난 2019년 1월 우진성 교수와 학생들 수업사진〉

이어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우진성 교수가 「신약성서로 읽는 갈등, 치유, 화해」를 주제로 두 번째 집중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목은 신약성서를 갈등과 화해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으며, 성서 해석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12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와 사전 필수 교재에 대한 독서 발표가 이루어졌고, 각기 다른 목회 현장과 삶의 경험이 공유되면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형성되었다. 성서 읽기가 개인적 이해를 넘어 공동체적 성찰로 확장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번 집중 수업 기간에는 학문적 배움과 더불어 배움의 공동체를 지지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도 마련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출신 목회학 박사 동문들이 재학생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며, 2025년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들 또한 대전으로 내려와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계획이다. 이는 학문적 형성이 동문 간 교제와 환대로 확장되는 D.Min. 실천 교육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CST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한국어 과정은 매년 1월 한국에서의 대면 집중 수업과 7월 Zoom을 통한 실시간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과정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며, 점점 더 글로벌한 신학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ST D.Min. 한국어 과정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1명의 목회학 박사를 배출하며, 안정성과 실천성을 겸비한 신학 교육 과정으로 차분히 성장해 왔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 소감문 (D.Min. 2025) 김용화 목사



〈사진: 김용화 목사, D.Min. '25〉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졸업하게 된 김용화 목사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굽이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푸르던 고등학생 시절에는 '신학교 진학'이라는 인생의 방향계를 두고 기도했고, 신학교 문을 나설 때는 '참된 목회'의 무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목회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박사 과정은 제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하프 타임'에 주신 더없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잠시 사역의 걸음을 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현장 중심의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 다시금 목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완주의 기쁨을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목양교회 김완중 목사님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역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프로젝트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 성서 교육의 방법과 경험에 대한 탐색: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 상호 의존성,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 입각한 참여 실천적 질적 연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두 신앙인의 진솔한 질문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가 과연 청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는가?"라는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론 중 '참여적 실행 연구'를 선택했고, 청년들과 깊이 소통하며 그들이 기존 성서 교육에서 느꼈던 갈증과 어려움,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구성한 성서 교육 모델을 청년 공동체 안에서 직접 시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연결되고 살아 움직이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핵심 틀로 삼았던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 상호 의존성, 그리고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자기의 경험으로 읽어 내려가며 해석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나 홀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목회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 이론적 토대들은 앞으로 제가 걸어갈 목회 여정 속에서 성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시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졸업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설레는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수많은 내적 가능성을 목회 현장에서 하나씩 정성껏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시대를 읽어내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며 졸업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 소감문 (D.Min. 2025) 백두산 목사

〈사진: 백두산 목사, D.Min. '25〉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CST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백두산 목사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사역의 여정 속에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목사님의 권유로 CST의 학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책상에 앉아 학문의 길을 걷는 것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기존의 신학적 틀을 넘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은 상당한 지적 씨름을 요구했습니다. CST의 학업은 이러한 내면의 장벽을 깨닫게 했고, 그 깨달음은 목회 현장에서 겪던 어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주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들의 소그룹 모임 참여 중단 경험 탐구: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 - 포스트콜로니얼 신학과 상호 의존성 관점을 중심으로"입니다. 처음 연구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소그룹에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목회적 효율성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의 질문은 '청년들은 왜 소그룹 참여를 중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가?'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기대했던 답을 찾는 대신, 청년들의 삶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의 변화는 저의 목회 철학 전반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성과 중심의 질문에서 벗어나,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성도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CST에서의 모든 시간은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회복과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반복되던 사역에 지쳐 방향감각을 잃었던 저의 목회는 다시금 소명 의식을 회복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회복과 치유는 놀랍게도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성도 간의 갈등을 애써 외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ST라는 이름 아래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 목회자들은 제 인생에 더없이 귀한 선물입니다. 특히 깊이 있는 학문적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김남중 교수님과 우진성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움의 자리에서 얻은 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학업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김상현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우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졸업생의 졸업 소감문 (D.Min. 2025) 한태희 목사

〈사진: 한태희 목사, D.Min. ‘25〉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에 CST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을 졸업한 한태희 목사입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꿈에만 그리던 CST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학문적 자랑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박사학위 과정은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목회 현장의 경험 속에서 고민하며,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했던 질문이 있었기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심정으로 간절함과 기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이중직 목회를 해 왔습니다. 처음 이중직을 할 때에는 더 나은 목회의 기회를 기다림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의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CST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고민하게 된 것은, 이중직이 더 이상 소망도 만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목회적 정체성에 갈등을 느끼게 되었을 때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새로운 표준으로서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중직 사역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이중직 목회자로 지내 온 20년의 경험에서 시작했지만, 솔직히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난간이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라는 주제어 하나를 들고, 머리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하지만 정작 명확한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CST의 목회학 박사과정은 좋은 질문이 좋은 이론을 낳는다고, 그리고 좋은 이론이 좋은 실천을 하게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사과정은 질문과 이론, 그리고 실천으로 발전하였고, 매 학기 수업을 통하여 이중직 목회자로서 나의 목회적 정체성을 깊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론을 만들며, 정체성 회복이라는 실천적 결과를 도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와 같은 이중직 목회자 12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논문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속한 교단과 상호 의존하여 현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또다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옆에서 응원해 주신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를 프로젝트에 연결시켜 주신 정희수 교수님과 김남중 교수님으로 인하여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는 11월쯤에 저는 시골 아담한 교회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또 다른 배움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목회 현장을 마주해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사랑으로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그리고 환대와 상호 의존성을 통하여 온 마을과 함께하는 목회 돌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2026년 1월 ‘Community Course’ 참가자 모집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하 CST)이 2026년 1월 ‘Community Course’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학 과정으로, 2026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신청 및 수강료 납부 마감은 2026년 1월 9일이다.

지역 주민은 Community Course 수강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CEU 포함 여부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는 CEU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달러이며, CEU를 포함할 경우 650달러다. 수강료에는 현지 이동, 식사, 박물관 입장료가 포함되며,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과정의 주제는 「Theology as Testimony: Space, Practices, and Legacies of Japanese American Detention in Los Angeles」이다.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은 강제수용의 역사를 다룬다. 수업은 일본계 미국인 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영적 실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예술 작품과 종교 의례, 신학 텍스트,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 신앙이 폭력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번 Community Course는 현장 방문을 포함한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일본계 교회와 기념 공간, 박물관 등 공동체 기억의 장소를 방문한다. 이번 과정은 CST 학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유키 슈워츠가 진행한다.

Community Course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CST 공식 홈페이지(cst.edu/community-cours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목 박사의 저서들이 나오기까지

〈사진: 최승목 목사, D.Min. '15〉

저는 2012년도부터 CST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번영 설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Andrew Park 교수님과 오강남 교수님에 대한 강의가 너무 신선하고 저에게 오는 깨달음과 적용 부분이 있어서 미주 중앙일보에 강의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성경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3년 6개월간 글을 거의 매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연재된 글이 인터넷에도 돌고 있던 가운데 한국의 한 애독자께서 제 글을 다 모아서 제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출판사 사장이던 한 목사님께 제 제본을 드리게 되고 그것이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심리학을 읽다"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세상에 나와서 "본죽" 회사의 직원들 필독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5쇄 출판을 하게 되어 "갓 피플"에서 기독교 내적치유부분 베스트셀러가 되고, 출판사 자체 베스트 작가상을 수여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Andrew Park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강남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심층 종교"를 오랜 시간 제 머리에 간직하고자 시작했던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Samuel Lee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회 상담의 글들을 정리하여 연재하던 것으로 시작되었고, 첫 번째 출판이 된 이후에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을 책으로 더 출판하고 싶은 욕심이 나서 지난 20여 년간 C국 지하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성령론" 강의안을 출판사에 의뢰해서 두 번째 책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브런치"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교회 안에서 성서대학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 책이 더 소개되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그리고 도미니카에 있는 신학교에도 이 책으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TS TV America에서 6주간 시리즈 강의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세 번째 책인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목회자들의 절망과 교회들의 위기를 보고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오강남 교수님과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와 설교에 도움받았던 김남중 교수님께 부탁해서 저와 같이 세 사람이 공저로 "코로나 이후 예배 설교 미래 리포트"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리와 변증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안을 모아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기독교 교리"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지금은 변증학 강의를 하면서 "예수 변증학"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ST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글 쓰는 법을 배우고, 그 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연재하고 출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글 쓰는 자로, 목회자로,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CST에서의 학업은 저의 학문적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저의 신학적 탐구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간직하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한국어 도서 5권 그리고 영문 도서 1권 그리고 새로운 도서 1권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며 이러한 집필 과정을 통해서 설교 목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확장되었습니다. CST에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여러 교수님과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끌어 주었던 동문들께 감사하며 학교에 명예로운 동문이 되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7일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7일 기준): $81,420

- KEF 잔액(1990.03 - 2026.01): $2,511,654
- KLS 잔액(2018.10 - 2026.01): $861,418
- General Fund(2024.03 - 2026.01): $13,728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 기준 —

개인 후원	단체 후원
이병준 회장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이상영 목사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챤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본 명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7일 기준): $14,200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인 석좌교수 기금

— 2026년 1월 기준 —

기부자(TBA)

기부총액 (2026년 1월 7일 기준): $300,000